

# PEOPLE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 건협 광주전남지부

### 신안군에 사랑의 성금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영암군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어려운 여건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금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활력이 돌도록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성금 전달 외에도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협력해 지역주민 건강캠페인, 사회공헌 건강검진,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광주도시공사

### 아동 여름방학 문화체험 지원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13일 여름방학을 맞은 아동들을 위한 ‘수상레저 체험’ 사회공헌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지역 아동센터 아동 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 아동들은 무더위를 잊고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바나나보트, 디스크보트 등 다양한 수상레저 기구를 즐겼다.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하던 아이들도 전문 강사의 안전교육과 공사 직원들의 격려 속에서 자신감을 얻어 활기차게 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체험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아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또래와 함께 어울리며 소통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장성교육지원청

### Wee센터 가정방문상담 운영

장성교육지원청은 여름방학 기간 중 위기 학생 조기 발굴과 정서적 지원을 위한 ‘Wee센터 가정방문상담’을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정방문상담은 Wee센터 전문상담사가 지난달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초·중·고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Wee센터 가정방문상담은 순회상담 학생 또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과 함께 보호자의 양육 고민을 함께 나눠준다.

전문상담사가 학생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 KT전남북본부 “참전유공자 난청 치료 지원”

‘국가영웅과 함께하는 KT소리찾기’ 사업...전남대병원·보훈부 협업  
전문 진료·청력 상담 보청기 맞춤 제작·소통·일상 회복 도움 기대

KT 전남전북광역본부(이하 KT전북)는 13일 시니어 국가유공자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국가영웅과 함께하는 KT소리찾기’ 사업 일환으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집중진료를 시행했다.

이번 진료는 전남대병원 및 국가보훈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전남대병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담아 이비인후과 조형호 교수가 진료 휴무일을 활용해 난청 증세가 있는 국가유공자만을 위한 전문 진료를 제공했다.

“국가영웅과 함께하는 KT소리찾기” 사업은 단순히 보청기만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학병원의 전문 진료 및 청력 상담을 바탕으로 보청기 처방과 맞춤 제작까지 지원한다

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개인별 적합성이 높은 보청기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KT는 급증하고 있는 시니어 난청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보훈부와 협업해 국가에 헌신한 호남지역의 60세 이상 참전유공자 어르신과 배우자를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난청은 단순한 청력 손실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인 만큼 빠른 진단과 올바른 보청기 착용을 통해 청력 저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KT 전남전북광역본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번 집중진료를 준비했다”며 “이번 지원이 어르신



KT 전남전북광역본부는 13일 시니어 국가유공자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국가영웅과 함께하는 KT소리찾기’ 사업 일환으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집중진료를 시행했다.

들의 소통과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농어촌공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인재 육성 ‘맞손’

### 현장 기반 공동 기획·운영 등 추진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2일 전남교육 꿈실현재단과 농어촌 가치 확산 및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방침에 따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에 대한 미래 세대의 공감과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농어촌 현장 기반 생태·체험·진료 교육 공동 기획과 운영, 전남지역 학생과 연계한 농어촌 가치 확산 콘텐츠 기획과 홍보, 공사의 ESG 경영 기반 사회공헌활동과 재단의 인재 육성 사업 연계다.

협약에 앞서 농어촌공사는 전남교육 꿈실현재단과 함께 농어촌 인사이트-업(Insight-up) 투어, 농업 관련 국제기구 직원 인턴십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공동 운영해 왔다.

앞으로도 스마트농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현장 견학 등 농어촌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농어촌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이산하 김대중·오른쪽)과 농어촌 가치 확산 및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해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의 시작은 미래 세대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ESG 경영을 실현하는 공기기업으로 농어촌과 상생하는 미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 영어 말하기 대회

### 전국 중·고교생 대상·환경·기후위기 주제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은 다음달 13일 ‘제8회 환경을 주제로 한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청소년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전국 중·고등학생이며,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주제는 환경보전,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으로, 참가자들은 영어로 원고를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 대회는 사전 심사와 본선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본선 발표는 3~4분 이내 PPT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며, 원고 내용, 영어 유창성, 발표 태도, 경중 호응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심사는 영문학 교수, 원어민 교사 등 전문가가 맡는다. 시상상은 대상 1명(환경부 장관상), 우수상 4명



(전남도지사-전남도교육감상), 장려상 4명(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이사장)에게 이취하며 상장과 문화상품권이 수여된다. 수상 인원은 참가자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원고 접수는 이메일과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 홈페이지(www.sacamp.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근우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사진)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환경문제를 영어로 표현하며 지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 전남도, ‘마주해요! 전국 희망메시지 캠페인’

전남도는 13일 도청 1층 윤선도홀에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무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마주해요! 전국 희망메시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마주해요!”는 국민 누구나 마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정신건강을 함께 ‘마주’ 돌보자는 의미를 담은 정신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 브랜드다.

캠페인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일상에서 정신건강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청사를 찾은 도민 300여 명이 직접 희망 메시지를 작성해 ‘그린하트 조형물’에 넣는 참여형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메시지 작성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돌아보고, 정신건강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특히 전남도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고 스트레스 측정, 인생세킷 촬영, 정신건강관리앱(터치마인드) 홍보 등을 함께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국 각 시·도에서 수집된 희망 메시지는 오는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서울 코엑스 야외광장에서 대형 ‘마주해요 조형물’ 형태로 전시돼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공감과 실천 메시지를 확산할 예정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정신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로, 이번 캠페인 도민 간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 광주시, 건축·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 역량교육

### 건축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 참여...현장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광주시는 13일 시청 무등홀에서 지역 건축공사 관계자와 기술직 공무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건축안전 역량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축공사장과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관계자들의 안전의식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광주시는 국토안전관리원 소속 전문가 2명을 초빙해 건축·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관련 제도 및 절차의 이해, 안전 및 품질관리 실무 전반, 현장 사고사례 분석, 해체계획서 작성 및 구조안전 확보 방안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이번 안전 역량 교육을 통해 건축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서구,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지원 광주 서구는 13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세대당 100만원 상당의 침대 등 서구어니츠 지정기탁금 연계해 이재민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



전력거래소, 동구에 쿨링키트 전달 전력거래소(수석위원 김완홍)는 13일 동구청 접견실에서 폭염주최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냉동고, 쿨링키트 등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